

3장 인생의 비밀은 일찍 알수록 좋다

舍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卽是空，空卽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無意識界。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눈, 귀, 코, 혀, 몸, 마음도 없고, 색,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유한한 육체로 무한의 세계를 인식하다

- 우리에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부처는 어째서 사실은 없다고 했을까?
이 여섯 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뒤집힌다.